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월 1일 화요일 (주간)

제 350 호

불교는 현대를 선도하는 문화입니다. 02) 745-8503
01) 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심상선원 04) 734-2680 대전 논산시 인연면 송정리

법어 초대 진제 스님 부산 해운장사 조실



“화두란 앞서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일을 하는 가운데 근본 당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일심(一心) 중에 있어요. 아낄 일만 면 데서 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낮추고, 만 사람을 우러러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평화로울 것입니다.”

『지내신 내음』 16·17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전문직 불자들의 전법 서원

“불교대학에서 배운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적절히 활용해 법조인들은 물론 수행생활을 하고 있는 재소자에게도 불법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제7회 포교사고시에 합격한 강정호 변호사(44), 강 변호사는 울산 정도불교대학을 다니며 포

의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어, 앞으로 포교 일선에서 올릴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년 전 통신반에 등록하고 포교사의 꿈을 키웠다”는 김우일 국방대학 교수(58)·조계사 불교대학은 “대학 강의와 군부대 관련 저널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국방대학에는 불자회가 없다. 연수를 받고 조계종 포교사로 등록되면, 대학 불자회를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경전 공부와 봉사에 관심을 가지며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촉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직경찰로서 이미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홍 씨는 “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전문 능력과 도덕적 품성을 갖춘 포교사들이 배치돼 직장직능 불자회를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7회 포교사 고시에는 605명이 응시해 312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들은 19~20일, 2월 23~24일 두 차례 연수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얻게 된다.

오홍욱(취재 1부 기자)



대왕암 해돋이 신라 문무왕(7-681) 수증릉 위로 새 아침이 솟고 있다. 죽어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대왕의 원은 천년 세월에도 버려지지 않고 새 아침의 빛으로 살아나고 있다. 햇살 따라 비상하는 새의 날개짓에, 평화와 자비가 넘치는 한 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실어본다. 사진=박진우(사진 편집위원)

월드컵·주 5일 근무제 ‘포교 호재’

본지, 불교계 지도자 50명 설문조사
“주말법회·체험프로 늘려야” 44%

월드컵과 대선 등 올해 잇따라 국내외의 커다란 행사들이 불교 포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이같은 기회를 호재로 삼기 위해서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 및 사찰본연의 역할 강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내용은 본지가 조계·태고·천태·진각종의 총무(총리)원장과 부장장을 포함한 스님 25명과 동국대·위덕대 총장 및 불교방송·TV 시장을 포함한 재가자 25명 등 교계 지도자 5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설문은 구랍 15일부터 10일간 인터넷 및 서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내용은 월드컵, 주 5일 근무제, 대선 및 지방선거, 위성방송 개국, 경제여건 등 올해 최고 관심사인 5개 항목이 불교 포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에 따른 대비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관련기사 3면』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전체적으로 올해 포교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다소 도움이 될 것’ (27명) ‘상당히 도움이 될 것’ (6명)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다소 어려워질 것’ (10명)이라는 부정적 전망보다 훨씬 우세했다.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7명이었다.

항목별로는 월드컵의 경우 응답자 중 45명이 포교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명만이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46명이 ‘호재’로, 4명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는 등, 이 두 항목의 경우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

적이었다. 이는 월드컵이 외국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좋은 기회이고,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선 및 지방선거 등 정치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24명이 ‘호재’, 17명이 ‘악재’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9명이나 됐다. ‘호재’ 전망이 우세한 이유는 정치인들이 불자들의 표심(票心)에 눈을 돌리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140여개 채널의 디지털 위성방송 개국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관련해 ‘호재’ (25명)와 ‘악재’ (22명)의 차이는 근소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교 홍보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견해와 미디어 환경이 열악한 불교계 현실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다.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이것이 불교 포교에 ‘악재’ (34명)가 될 것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불교역사기념관 조계종, 3월 착공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3월에 착공한다. 조계종은 국회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지원이 올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2월까지 건축인허가 문제를 마무리 하고, 기공식과 함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업은 이미 푸어린 부지매입비 260억원과 건축비 380억원이 소요된다. 건축비 380억원 중 190억원은 올해(70억)와 내년(120억) 2년간에 걸쳐 정부보조로 이뤄진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전통문화의 간격을 이뻐한 불교역사문화의 체계적 보호와 전승을 목적으로 조계사 경내에 대지 3,775평 연면적 5212평 지하4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news.com

불교방송 가청권 넓어져

서해 최북단 섬 연평도에서도 이제 불교방송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됐다.

불교방송(사장 김구현)이 구랍 26일 송신소를 남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전, 청취 구역이 2배로 확대됐다. 이에 동쪽으로는 경기도 용인에서 여주·이천과 강원도까지, 남쪽으로는 수원·용인·오산과 평택, 충남북 일부지역까지 가청권이 확대돼 중부 지방 전과 포교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송신소 이전으로 북한 의 개성까지도 전파 송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교방송의 가청지역은 행정구역상 20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10여개가 늘어나게 됐으며, 청취 가능 인구도 7백만 명에서 2천 1백만명으로 4백만명이 증가하게 됐다.

한영우 기자 mhwan@buddhapanews.com 김주필 기자 jkim@buddhapanews.com

신년 특집 32면 발행

불교지도자 임오년 신행계획	5면
나눔의 손잡기운동 ‘후원합시다’	12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26·27면
인도·중국대륙의 불교비람	32면

『새이력기』

설문 ‘2002년 포교환경 변화’	3면
월드컵과 불교 6·7면	주 5일 근무제 8면
양대선거와 포교 9면	위성방송시대 10면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서 읽기

1. 불교서적을 한달에 몇 권정도 읽습니까?
①1권 이하 ②2권 ③3권 ④3권 이상
2. 주로 어떤 분야의 책에 관심이 많습니까?
①수행류 ②경전관련 ③문화재관련 ④선
3. 불서를 선물로 주거나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준 적이 있다 ②있다 ③받은 적이 있다 ④없다.

설문 참여: 1월 3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정한 경음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1호 9면에 실립니다.

새해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광명이 흥만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신년기원 大吉祥 玉龍子 龍馬圖

임오년 새해 풍요와 길상의 상징인 용마도를 대길상도의 大家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밤새워 한점한점 기도하며 조성하여 인연처에 전합니다. 玉龍子 대길상도는 주한 美國대사관 인도대사관을 비롯한 여러기관 단체에 전수되었으며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美國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높은품격, 국제적 보편성을 인증받은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세계적 작품입니다. 대길상도가 전하여지는 곳에 대길상 대승취 대경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말·馬』

범구비유적 개념에 길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 길상을 기도하며 조성한것이 길상도입니다. 그 가운데 말은 풍요와 평온 길상의 상징적 동물이며 불교에서 존중하는 만다라에도 馬寶로 표현됩니다. 또한 6년동안에 하나인 馬頭觀音의 의미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풍요의 여신 데제테르(Demeter)의 머리모습이 말의 형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⑦회에 달하는 작품전을 통하여 KBS, MBC,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불교계 언론 등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국민과 불자에게 널리 알려진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통각로운 진화조상 작품입니다.

⑧ 다양한 구도와 규격의 작품으로 전합니다.

⑨ 대길상도는 기도축원 발원 불자님께 발송용으로 전합니다.

⑩ 정식으로 중대한 고문서 대길상 용마도 신년카드를 준비하시는 불자님께 증정합니다.

⑪ 원하시는 불자님께는 우편으로 발송 증정합니다.

⑫ 조신불 목걸이, 옥자대명명진명목걸이, 대승마도 목걸이등을 증정하여 드립니다.

묘법연화경 대강좌

석지형스님은 10여년간 묘법연화경을 편역 1993년 KBS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불교계의 선지식 석학 여러분을 모시고 출간대담회를 여법봉행 한국의 인연사찰과 불자들에게 법보시로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각계 교수님의 특강과 석지형스님의 강론으로 뜨거운 열거속에 봉행되는 묘법연화경 대강좌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매주강좌: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 동참불자님께 묘법연화경(고급양장본 819P)을 법보시로 증정합니다.

○ 국내외 각급 불교신학단체, 군법당, 각종학교등에 호신불목걸이 단주 대승경전등을 계속하여 법보시로 전합니다.

玉龍子대길상도지식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 日本정부 특허청 특허인증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것임을 대명합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전세계에 널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소림정사·불교아카데미
소림불교아카데미총동무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511-6210~5
3443-9871~7, 3446-2158, 2185 FAX: 511-6216